

## 중직자 (사도행전 6:1-7)

중직자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쓰임받는다라는 뜻이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성경은 그리스도 말하는 책이다. 주제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핵심이다. 창 3장 원죄를 바탕으로 쓰여졌다. 성경은 원죄의 원인을 사단이라고 한다. 이 사단을 꺾을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중요한 것을 예사롭게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당하고 방황한다. 이 중대한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습게 생각한다. 우리는 이것이 근본이다. 이 사실이 우리의 모든 것에 근본이다. 이 안에 들어온 것을 보고 답 냈다고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18절 잘 아는 말씀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같이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양쪽이 너무나 상반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미련하게 보고 우리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그렇게 다른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단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봐야 한다. 이것이 영안이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이 눈으로 해석하고 정리하고 답을 잡아야 한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리스도가 사단을 죽인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원죄를 통과해야 한다. 우리의 복음이 원죄를 통과하지 못하고 원죄에 머물러 있으면 자연적으로 죄를 강조하게 된다. 죄를 강조를 많이 해야 한다. 죄를 지으면 안되고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으므로 죄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 죄를 통과해서 사단이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복음을 잡았는데 내 생각의 수준이 죄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자연적으로 행위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복음안에 있으면서도 상당히 행위 판단의 기준이 율법적인 경향을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성경처럼 우리의 복음이 이 원죄를 통과해서 사단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제일 첫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할 수밖에 없다. 원죄를 통과하지 못하고 원죄에 머물러 있으면 자꾸 행위나 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니가 죄를 지었으니까 안된다. 이것이 자꾸 생각을 잡게 되는 것이다. 분명히 사실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통과했다. 사단이 원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죄는 신경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죄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사람을 못 살린다. 오히려 자기도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죄를 통과한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다. 내 복음이 원죄를 통과하지 못하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자연적으로 나의 죄나 행위가 더 크게 이슈가 된다. 자꾸 하면 종교가 된다. 더 계속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나를 누르고 율법이 된다. 당연히 우리는 나의 죄와 행위를 회개하고 고쳐야 한다. 그런데 그 죄에 신경을 자꾸 쓰다보면 영적인 힘을 기르는데 2등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모든 것은 영적 문제이고 사단이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적인 힘인데 자꾸만 왜 죄를 지었냐는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죄를 이기는 답도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사단이 죽어야 내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런데 내 복음이 원죄에 머물러 있고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자꾸 나를 죄를 안 짓게 하려고 한다. 틀린게 아니기 때문에 속기 쉽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완전 답에 가야 한다.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도 이론적으로라도 그 답에, 바른 답에 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소망이 있다. 언젠가는 내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정복하는 그 때가 온다는 것이다. 우리의 복음은 원죄를 통과해야 한다. 하나님은 원죄를 통과한 그 밑에 있는 사단으로부터 복음을 출발시키셨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다. 죄를 생각하면 아담을 죽이고 아담을 새로 만들어야 했을 것이다. 새로 아담을 만들어도 죄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신 것이다. 답은 한 개 뿐이다. 우리의 모든 문제, 진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딱 하나 있는데 사단이 죽어야 한다. 우리의 복음이 원죄를 통과해서 사단에 이르고, 그때 그리스도가 진짜 언약이 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 1. 중직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의 중직자 본문중 대표적인 구절이다. 1절

에 보면 그 때에 제자들이 많아졌다고 하였다. 교회 사람들이 증가하니깐 할 일이 많아지는 것이다. 그 전에는 사도들만 해도 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과부에 대한 구제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을 본문에 썼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래야되지만 과부와 고아에 대한 구제는 교회의 중요한 포인트였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이스라엘로 온 헬라파 과부들을 유대지역에 살고 있는 과부들보다도 등한히 한 것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공평하다고 이야기 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집사 일곱명을 세워서 집사님들이 감당하도록 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4절에서는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하였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사역하는 일에만 하고 다른 일은 일곱집사가 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중직자가 시작이 된 것이다. 이 분들이 아주 교회에서 중요한 분들이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중직자가 매우 중요하다. 장로님들이 중요한 거 두말할 필요 없다. 교회 전체의 방향이 당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 장로 뿐 아니라 안수집사, 권사님 다 중요하다. 교회의 중요한 부분을 다 맡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이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안된다. 물론 성도님들도 중요하다. 예배의 구성원이 된다, 아주 중요하다. 만일 여기 장로님들만 앉아서 이야기하면 되겠는가? 아무 재미없다. 안그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예배이기 때문에 성도 너무 중요하다. 우리 절벽이 렘넌트들도 중요하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 어떻게 아는가?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중직자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직자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하려고 한다.

성경 전체를 보면 중직자는 세가지 방향으로 가면 된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기도와 사역에 전념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이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고 사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직자들도 밖에서 전도 선교 많이 했다. 빌립이나 스테반 같은 사람은 사도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다. 그래서 이 중직자들도 전도 선교에 더 많이 관심두고 행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직자가 렘넌트 운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세계 복음화에는 목사 장로가 따로 없다. 권사, 안수집사도 얼마든지 세계복음화 할수 있다. 사실 교회 안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것은 복음 가진 교회의 특성 중의 하나이다. 물론 등한히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귀중하게 감당해야 한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전도해야 하고 연합한 성도들 돌아봐야 한다.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런데 밖에는 이것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악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는 복음을 몰라서 저주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 복음만 전달해주고 복음만 들어가면 이 사람이 일어설텐데, 그게 안되어서 저주처럼 사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성경의 시대적인 복음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중직자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오바다같은 사람은 진짜 불가능인데, 참 대단한 분이다. 다니엘의 친구들, 에스더등 포로로 잡혀갔어도 자기가 왕이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아주 사도 바울 옆에서 중요한 일을 했다. 요게벳이나 한나같은 여성들도 시대적인 일들을 하였다. 참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중직자같은 인생을 하나님 나도 살게 해달라고 언약 잡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 기도의 1번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게 해주시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한번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정시기도이다. 하루에 한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을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냥 기도를 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 귀하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 그리고 이런 중직자 되기 위하여 첫 번째 조건이 있다. 출발이 복음이어야 한다. 남은 자의 조건은 언약이었다. 언약을 담지 않고 순례자가 되겠는가? 언약이 없는 순례자가 무엇을 하겠는가? 돌아다니

다고 해서 순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언약이 없는 순례자는 허공을 치는 것이다. 정복자는 이 순례자가 가진 이 언약의 결과이다. 우리 중직자는 이 언약으로 3천후후무의 축복을 누리야 한다. 나와 내 교회와 나의 업이 100년의 응답을 받는 것이다. 어렵지 않다. 금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길로 들어서면 되게 되어 있다. 나 개인 뿐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도 백년의 응답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내가 할 헌신이다. 이것을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이다. 아무말, 누가 무슨 말 해라 마라 안해도 스스로 기도하고 찾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언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많이 있다. 스스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기도하는 것이다. 돈 있는 사람은 돈 좀 써도 된다. 이런데 쓰라고 돈 주신 것이다. 여기에 언약을 가진 사람이 성경적 전도자였다. 가난하겠는가? 성경은 여기에 답을 줬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도 가능하다. 문제는 복음이 내게 뭐냐는 것이다. 서론에서 말한것처럼 나는 어떤 복음인가이다. 죄를 통과한 복음인가? 아니면 원죄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내 머리에만 복음복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다 달려 있다. 답을 주신 것은 복음이다. 다르게 아니다. 간단히 보이는 복음 하나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무엇으로 우리가 사단을 이길 것인가? 절대 다른데는 답이 없다. 그래서 한 교회에 복음이 살아 있다, 그러면 그 교회도 백년의 응답을 받는다. 복음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복음 떠나지 않고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다. 때가 온다는 것이다. 항상 가능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개인과 교회와 시대가 다 그랬다고 성경에 써놨다. 이 뒤에 항상 이 시대를 준비한 중직자들이 있었다는 말이다.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이런 중직자로 살겠다? 얼마나 대단한가? 진짜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다. 렘넌트 7명, 내가 말을 많이 하는데 스스로 렘넌트 된 사람 없다. 그들 뒤에는 항상 그 시대를 두고 준비한 중직자들이 있었다. 다윗이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라고 말했다. 다윗 눈에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종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런 부모 되어야 한다. 뭐할것인가? 자식에게 인정도 못 받고. 그래서 안된다. 하나님의 종, 베들레헴 사람, 내 아버지 이새라고.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의 결과이다. 사무엘이 잘나서 사무엘 되었는데? 요게벳의 기도와 결단이 모세를 만든 것이다. 예를 들면 한 두사람 이겠는가? 왜 성경에 써 놨겠는가? 우리가 믿는 책이다. 너도 이렇게 되어라. 될 수 있다. 답은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완성했다. 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라. 이것이 메시지 아닌가?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청년들이 전부 이런 중직자 다 되기 바란다.

## 2. 237, 5천 종족

출애굽 시대에는 아무것도 안하고 가나안 땅만 가면 모든 문제 해결되었다. 광야의 모든 기록의 결론이다. 출애굽 시대에는 아무것도 안하고 가나안 땅만 가면 모든 문제 해결되었다. 이 말은 출애굽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개 개인의 인생의 답이 그것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언약 가진 자의 특권이였다. 아무것도 안하는데 먹을것이 막 내려온다. 그냥 가라는데로 가기만 하는데 모든 문제 해결되었다. 이것이 광야의 메시지이다. 광야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통틀어서 이야기 하면 결론적 메시지가 이것 아니냐는 것이다. 가나안만 가면 아무것도 안해도 모든 문제 해결, 이게 그 시대의 메시지이다. 너무나 쉽고 간단하다. 가면 된다.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너무나 이상한 것이였다. 일을 안하고 가는데 먹을것이 나오냐는 것이다. 대신 다른 좋은 것 아무리 안해도 안가면 죽었다. 그냥 왜 죽었냐? 이유도 한 개 뿐이다. 가나안을 안갔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다. 이유 그것 뿐이다. 억지로라도 갔으면 그들은 시대적인 응답과 증거를 봤을 것이다. 문제는 지금도 일어난다. 이 원리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것일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때하고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 그 때는 할 일이 있었나?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 지금은 너무 할 일이 많지. 그 사람들이 모래 땅에서 할

일이 뭐가 있는가? 모래 땅 파면 뭐하는가? 그냥 가니까 가는거지. 그런데 지금은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 많은 일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한다면 그때와 조건이 같은 것 아닌가? 문제는 이 모든 하는 일을 내가 세계복음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뭔가 다른 이유에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처음, 본래부터 포인트는 일의 종류가 많으나 적으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포인트는 그 일을 누가 왜하나,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가 포인트였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한다면 그 때와 지금은 똑같아 지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아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걸어가면 되었다. 지금은 할 일이 많아도 내가 세계복음화, 가나안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내 같은 것 아닌가? 문제는 상황이 아니고 내 신앙고백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에 대한 많은 증인들을 기록해놓았다. 시대마다. 시대가 다르면 일이 다르다는 이야기 아닌가? 교회사 속에서도 많이 있다. 지금 우리와 함께 복음운동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많이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안하고 오직 세계복음화를 위해 뛰었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간증 할 사람이 지금도 우리 중에는 많이 있다는 것이다. 237, 5천 종족 이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단어이다. 이 단어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세계복음화라는 단어가 인간에게 무엇인가? 그 답을 이미 광야에서 주었다. BC1500년이었다. 너는 거기 가 가면 하면 정말 모든 문제 해결이야. 저주를 당해서 헤매는 인간이 많이 있는데, 이 인간에게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주었는데 그게 그들에게 무슨 의미인가? 인간들이 신경이나 쓰냐? 신자도 자기 앞가림 하기에 바쁘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 하셨다. 세계 복음화. 그러면 그것이 인간에게 무엇을 말하냐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이다. 세계복음화는 인간 전체에게 그 문제의 답으로 주셨다. 세계복음화는 믿는 자에게 응답의 답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가나안 땅을 걸어가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을 메시지에 써 놓은 것이다. 성경에.

세계복음화가 무엇인가? 사명자들이 열심히 하는것인가? 그 전도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 위해서 하는게 세계복음화인가? 아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이다.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가? 광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셨는가? 잘가고 못가고가 아니다. 가나안 땅을 가라. 그러면 해결이야. 기도 응답 안되는 분 많이 있다. 어떻게 해결하라고 광야에서 이야기 하였는가? 알겠다. 가라. 그러면 해결될 것이다. 알아서 가라. 그게 광야의 메시지 아닌가? 이것을 안하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했으면 어떻게 되었는가? 억지로라도 울면서라도 갔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사람들 환영했을 것이다. 너무 수고했다면서 환영했을 것이다. 불만을 토하면서 갔더라도.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칭찬하고 축복했을 것이다. 어떻게? 지난주 말씀 나왔다. 그들이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 자기들은 세운적이 없다. 그런데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한 집으로. 누가 우물을 팠는가? 안 팠는데 그 귀한 우물로, 그들 중에서는 아무도 가서 포도나무 심은적 없는데 포도원과 감람원, 그것을 먹고 배불리 살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닌가? 그것이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다. 이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내게 내 인생에 세계복음화가 무엇인지 다시 눈 뜨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 이 응답이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이것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이다. 내가 뭐 포도를 심은적이 있는가? 우물을 판적이 있는가? 가니까 있는데. 내가 돌 하나 갖다 놓은 것 없어. 그런데 아름다운 성읍이 거기 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불합리하다. 도대체 사람이면 이런일이 있을수가 있냐? 그 사람들은 뭔데, 우리는 다 죽여버리고 우리것을 다 죽여버리냐? 하나님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봤는데 왜 다른 신을 믿냐? 이유는 나를 안 믿어서 그렇다. 이것이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가슴이다.

우리가 영원한 복음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은 것이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땅끝까지 가려고 발버둥 치면 이런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이다. 우리 뿐 아니라 우리 후대도 동시에 이런 응답을 받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표현했다. 그게 백년의 응답. 우리 모두에게 이 응답으로 충만하기 바란다.